

다향오리, 오리데이 맞아 최대 50% 할인 판매

다향오리가 5월 6일까지 인기 제품을 할인 판매했다.

오리업계에서는 오리와 발음이 비슷한 일자인 5월 2일을 '오리데이'로 지정했으며, 오리 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오리고기 소비를 촉진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다향오리는 오리업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해마다 오리데이를 기념한 할인행사,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슈퍼, 메가마트 등 주요 오프라인 매장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몰, 홈쇼핑 등 다양한 채널에서 최소 30%부터 최대 50%까지 할인해 판매했다. 대표적으로 이마트에서는 훈제슬라이스(600g)를, 홈플러스에서는 1등급 허브갈릭훈제슬라이스(400g)를 각각 8,000원대에 판매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이마트몰 'MD가 간다' 코너의 오리데이 행사 메인 상품으로 다향오리 제품을 기존보다 30%~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

다향오리 기획실 박은희 상무는 "오리데이를 맞아 다향오리의 신선하고 맛있는 제품들을 더욱 착한 가격에 선보여, 모두가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다가오는 황금연휴부터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이 많은 5월이니 만큼 다향오리와 함께 맛과 건강 모두 챙기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스포츠통계



다향오리, '그린플러그드 서울 2015' 다채로운 간편영양식 선보여



다향오리가 지난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린 '그린플러그드 서울 2015'에서 팝업샵을 운영했다.

다향오리는 이번 팝업샵을 통해 음악 축제에서의 출출함을 달래줄 간편영양식 '훈제오리 슬라이스', '오리버거', '오리육포', '치킨너겟' 등을 선보였다. 또한 다향오리 팝업샵에서는 매일 선착순으로 다향오리 페이스북 팬임을 인증한 고객 52명에게 인기 포켓영양간식 '나는 오리 육포다'를 무료로 증정했다.

이외에도 다향오리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한 '그린플러그드에서 다향오리를 찾아라!' 인증샷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페이스북 내 이벤트 게시물 댓글로 다향오리 부스 인증샷을 올린 고객을 대상으로 3명을 추첨하여 다향오리 선물세트를 증정했다.

한편, 올해로 6회째 열린 그린플러그드 서울은 '따뜻한 봄날의 음악소풍, 가장 행복한 음악축제'를 모토로 매년 5월 난지한강공원에서 펼쳐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뮤직 페스티벌이다. 올해는 YB, 에피톤프로젝트, 윤하, 김예림, 몽니, 루시아 등 100여팀이 참여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다.

다향 통합기획실 박은희 상무는 "음악에 열광하는 젊은층부터 아이들과 함께 봄 소풍을 온 가족단위까지 다양한 고객층이 찾는 '그린플러그드 서울 2015'를 통해 소비자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자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향오리는 소비자 소통 강화에 힘쓸 것이며, 이를 통해 꾸준히 소비자 마음 속 오리 No.1 브랜드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주)참프레 박세진 신임 대표이사 취임



최근 단행된 (주)참프레 인사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박세진 전무이사 (사육본부장)가 취임했다.

지난 4월 30일 열린 취임식에서 신임 박세진 대표이사는 “입사 당시 가졌던 열정, 변화, 새로움 추구, 목표 4가지의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한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참프레는 훌륭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모두가 놀랄 만한 성장을 이뤄왔고, 앞으로도 양질의 성장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면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참프레는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위해 한 사람이 아닌 임직원들 모두가 주인공이자 경영자라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경제신문 박정원 기자 [2015. 05. 08]

팜스코, 지진 피해 입은 네팔 가족에 위로금 전달



(주)팜스코(대표이사 정학상)의 국경을 초월한 종업원 사랑 경영이 대단하다. 팜스코 산업 현장에는 선진기술을 익히고자 산업연수중인 네팔인들이 있다. 최근 네팔의 지진발생으로 인해 팜스코 네팔인들의 가족과 집에도 지진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현장 근로자들은 자

체적으로 구성된 상조회를 통해 모은 성금을 일차적으로 전달하여 아픔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에 팜스코에서도 현장의 자발적인 상조 활동에 맞추어 별도의 위로금을 추가로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팜스코 정호중 경영지원실장은 이런 추가 지원을 하게 된 이유로 “팜스코 경영이념 중 하나인 상생의 경영이념 즉, 이익을 공유하는 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소속원들의 아픔도 나누어 가볍게 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위로하는 것이 기업이 나아갈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